

# 축산악취 해결 위해 협력 대응 '군산문화재 야행' 성료

### 익산시, 김제시와 합동점검으로 악취방지법 위반 업체 3개소 적발 행정처분

익산시가 축산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김제시와 손을 잡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익산 남부지역 축산악취의 원인 해결을 위해 김제시와 합동점검으로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업체 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악취민원 지역으로 추정되는 김제 용지 축산농가 및 가족분노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 김제시와 협력 대응한 결과다. 김제시 용지면은 익산시 왕궁면과 더불어 도내 최대 양돈 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전주, 익산, 완주 등 주변 도시로 축산악취가 유입되어 여름철이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시는 지난해 서남부권 악취 조사 용

역을 통해 김제 용지 축산농가 악취가 남동풍의 영향을 받아 만경강을 넘어 익산시 남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김제시와 협력 행정을 펼쳤다.

시는 전북 최초로 도입한 악취측정 차량을 이용해 축산악취 발원지를 추적 감시하고 그간 쌓아온 악취 대응 경험과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김제시 환경과와 협업 행정을 하고 있다. 김제시 용지면 축산농가 124개소 중 주요 악취 유발 농가 19개소 및 가족분노재활용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과 악취 시료 포집 중이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악취방지시설 관리 요령과 악취방지대책을 설명하여 축산악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김

제시 단속반과 강력한 악취 단속을 추진했으며, 이후에도 김제시와 지속적으로 용지면 축산악취 대응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 민원은 시군의 경계가 없는 만큼, 김제시와 광역 행정을 펼쳐 강력한 악취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여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야간 축산악취 상시 감시반 활동을 강화하고, 익산악취 24 열의 실명제를 추진해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80(夜) 50여개 답사·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군산만의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2023 군산문화재 야행'이 지난 11일과 12일 내항 역사문화공간 및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군산문화재 야행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10일 개막식 등 야외 프로그램이 취소됐지만 이날 건물 개방 및 해설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야행은 원도심 내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를 이어주는 거리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80(夜) 50여개의 답사,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역의 문화재해설사가 들려주는 역사이야기(문화재 탐방), 문화재 만들기, 나도 독립군 시인이다, 야외 문화재 교실, 버리지 말고 아트하자 등 다양한 체험과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 등 군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빛으로 보는 문화재 등 특별한 야경을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야행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1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재해설사'가 구)군산세관본관 등 5개소 문화재에 배치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호응을 얻었다.

또, 어린이 문화재해설사에게 해설을 들으면 문화재별 스티커를 받는 숨은 문화재 보물찾기(스탬프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하며 관심을 받았다.

박홍순 문화예술과장은 "군산문화재 야행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태풍으로 개막식이 취소돼 아쉽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다음에 또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 통

### 익산시, '넥스트로컬' 지역캠프 성황리 마쳐

익산시는 지난 8~9일 서울특별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 사업인 '2023 NEXT LOCAL 5기' (이하 넥스트로컬) 지역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의 청년창업가들이 지역연계형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역 네트워킹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전북에서 유일함 참여 지자체인 익산시를 선택한 11개 서울 청년 팀이 이번 지역캠프에 참여했다.

서울청년팀들은 익산 청년창업자들의 사업장, 복합 청년몰 상상 노티어, 한국 식품산업혁신센터 진흥원, 익산 청년시청 등을 방문해 지역 청년창업가 및 창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특강 등을 통해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역지원 조사기간 동안 익산 청년시청을 거점으로 지역 청년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익산시 관광, 문화, 식품 등의 자원을 발굴 및 리뉴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과의 협업 및 네트워킹 및 사무공간 지원을 약속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소중한 추억 가득' 군산 체류 잼버리 참가자들 일정 마무리

군산에서 머무른 이집트, 에콰도르 잼버리 참가자들이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1일 군산시에 따르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잼버리' 조기 퇴영으로 호원대학 등에서 머물던 이집트, 에콰도르, 인도 잼버리 대원 400여명이 군산에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고 폐영식에 참여하기 위해 삼양월드컵 경기장으로 떠났다.



군산에서 머무른 이집트, 에콰도르 잼버리 참가자들이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0일 낮 동안에는 근대역사박물관,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청소년자치배움터(자음), 군산운동합리대교육센터 등에서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호원대학교에서 준비한 K-문화체험과 뮤지컬, K-POP댄스 등 다양한 문화공연에 참여했다.

이 기간동안 호원대학교에 머물면서 K-푸드, K-뷰티, K-스포츠, K-공연의 4개 부문으로 김치담그기, 헤어컷·네

일 아트, 호신술·태권도 체험 및 뮤지컬 공연 등 총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대학 교수진과 학생들이 문화사절이 되어 군산 방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군산과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의 휴식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서로

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시는 공무원 및 통역봉사자를 활용해 체류 기간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통을 넘어 국가별 문화나 관습까지 고려하는 섬세한 지원을 실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 개최

군산시는 지난 11일 동국사(군산시 동국사길 16)에서 피해자들의 뜻을 기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대표 이승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제8주기를 맞아 시 관계자, 기념사업회원, 일반시민, 관광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 치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민요, 대금연주, 헌공다례, 기림행사(사냥송 및 무용)로 엄중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제8주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를 맞아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행사로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전북 최초로 동국사 내 소녀상을 설치했으며 2021년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KT wiz 야구단, 연고지 익산시민 위한 이벤트 진행

KT wiz 야구단은 연고지 익산의 홈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서머리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KT wiz 퓨처스타임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익산야구장에서 열리는 모든 퓨처스리그 야간경기(18시 경기 시작) 입장객에게는 소정의 웰컴 기프트를 제공하고 이닝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벤트 첫날인 15일을 메인데이로 정하고 경기관람 시 함께 즐길 수 있는 차킨과 맥주(미성년자 등은 대체음료 제공)를 제공한다 밝혔다.

또한 경기전 행사로 16시 20분부터 40분간 KT wiz 선수단 팬 사인회가 진행되며, KT wiz 치어리더팀을 초청



해 이날별 공연 및 이벤트를 통하여 경기에 흥을 더하고 더운 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KT 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익산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동 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농촌 인력 해소... 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

익산시에 지난 11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72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베트남 국적으로 올해 2월 익산시와 베트남 애아습군 행정이 체결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 공항에 입국했다.

시는 근로자들을 마중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 안전하게 익산으로 이동을 돕고 14곳의 지정 농가에 배치했

다. 이들 근로자들은 앞으로 90일간 농손일손을 돕게 된다.

시는 입국한 계절 근로자들이 빠르게 정착해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베트남 애아습군 행정과 함께 추진했다.

입국에 앞서 지난달 베트남 애아습군에서는 고용농가가 애로사항으로 뽑는 언어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현지와 인터넷으로 연결해 우리시 소개, 범죄예방, 무단이탈 방지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올해 시는 처음 MOU방식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지난 4월 39명 입국, 9개 농가에서 90일간 근로하고 7월에 출국했으며 하반기에는 신청수요가 증가하여 근로자 72명을 최종 선별했다. 하반기에 결혼이민자 가족 45명이 외국인계절근로자로 참여하며 총 117명의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